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란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 200자 원고지 4~6매
◇보낼곳: 서울·수원(본사편집실)

“대학 지성인에게 호소한다”

대학은 확실히 나에게 많은 변화를 주었다.
그러던 나의 생활에 엄청난 큰 충격이 다가왔다. 우리는 ‘의대문화제’에 공연을 하기위해 연습중이었다. 비교적 큰 소음때문에 열람실학생들의 마찰이 조금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어느날 연습을 하기위해 악기를 보관해두던 강의실 창고에 가보니 창고문은 활짝열려 있고 여러가지 악기가 이곳 저곳에 완전히 파괴되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의 충격을 싣고 엄청난 것이었고,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머리속을 오갔다.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학교와 과로부터 인정받은 사생활활동이었다. 우리는 그날의 행사를 위해 거의 우리의 모든 정열을 투자해왔다. 우리에겐 가계한 이 일은 약간의 소음에 대한 폭력적인 보복이었다. 누구의 것이었던 간에 이일은 도저히 대학생으로서, 소위 지성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 누군지도 몰라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말하고 싶다. 이것은 지성인으로써 자처하는 당신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국가 국민이 지성인임을 열람실과 그라운드에서 서둘러서, 근접한 거리에 위치시킨 외대학생회에도 항의하고 싶다. 신입생

교통문제와 캠퍼스 분위기

—수원 제반 복지시설에 대한 제언

그리워 하던 캠퍼스에 복학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되어가고 있다. 그동안 발전된 것도 있고, 모양만 바뀐 것도 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얘기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문제이다. 이에 관한 버스 중차, 일반버스의 경우, 전철유치등 행정적차적 사항은 차치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융통성있는 배차 조정으로 다소 그 짜증을 덜어줬으면 한다. 특히 하교시간 같은 경우 버스가 코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시간에 맞춰 승차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제도로 인하여 20분내지 30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새치기로 인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심신은 녹초가 되고만다. 즉 버스를 앞차기 때문이 아니라 배차하여 오는대로 승차시간후 출발시간이 되면 출발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다.

둘째로, 아쉬운 것은 우리대학교의 정신 문화가 통일적이지 않은데, 특히 하교시간 같은 경우 버스가 코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시간에 맞춰 승차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제도로 인하여 20분내지 30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새치기로 인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심신은 녹초가 되고만다. 즉 버스를 앞차기 때문이 아니라 배차하여 오는대로 승차시간후 출발시간이 되면 출발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다.

셋째로, 아쉬운 것은 우리대학교의 정신 문화가 통일적이지 않은데, 특히 하교시간 같은 경우 버스가 코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시간에 맞춰 승차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제도로 인하여 20분내지 30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새치기로 인해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심신은 녹초가 되고만다. 즉 버스를 앞차기 때문이 아니라 배차하여 오는대로 승차시간후 출발시간이 되면 출발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다.

서울캠퍼스 체육부 소개

사회 발전과 경제 성장으로 스포츠는 매우 대중적이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간소외 및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그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각 대학에는 학교를 대표하는 운동부가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체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서울캠퍼스 소제 5개부 3개부의 체육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체조부
1953년 창설된 체조부는 1955년 전국대회 우승, 67년 멕시코 올림픽 파견선발 대회에서 개인종합우승을 하였다. 1991년 제46회 전국종합 선수권 대회에서 류우열(1년)선수가 국가대표에

결맞게 5관왕과 개인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아이스하키부
1957년 창설된 아이스하키부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 종합 선수권대회 우승을 하였으며 91년 2월 7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대회에서 우승을 하였다. 현재 훈련은 목동실내빙장에서 스케이트, 개인기, 포메이션등의 연습을 하고 있다.
농구부
1963년 창설된 농구부는 1990년에는 전국대학 농구대회 준우승을 하였으며, 훈련은 아침에는 조깅과 슈팅, 오후에는 본운동으로 게임을 하며 포메이션 연습을 한다. 야간 운동은 여름에는 슈팅, 겨울에는 슈팅과 서어릿 트레이닝 위주로 한다.
천 병 욱
(체육 3)

체육,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는 단어,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우리에겐 아슬아슬의식의 선에서 행체를 잃어가는 꿈.
취미로 장단에 어깨가 들썩이는 농부들의 축제, 성스러운영적 교감을 이루는 한의종교축제, 구름위로 거닐듯 종횡을 누리지 않는 축제 무드.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겐 축제는 사라지고 외형의 외식만이 남았구나. 흥겨움에 겨워 육자배기 한자락 한쪽 뿔아본 우리네 농부들은 머리머리를 동여메고 쇠고기수입 결사반대, U.R. 결사반대를 외쳐대고, 영혼을 계도해야 할 사제님들도 생존의 싸움터에 나오오구나. 잘 살아보자고 목청 높여 시작한 산업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우리의 고향 농, 어촌을 피폐시켰고, 생존을 위한 영전에 자신을 저당잡힌

민주정부수립과 공안통치분쇄

—현시기에 당면한 우리들의 과제

지난 3년, 공안통치의 한파 아래 우리국민의 민주열의는 일어 불고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은 지극한 야만성을 띠며 자행되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시정잡배와 다들바라는 권력싸움 아래 국가권력의 축적화는 가속화되고 ‘경제안정’의 구호 아래 국민경제의 대부분의 성과는 소수 매관자배가의 수중에 집중되었다. 소박하게 사는것마저도 힘들어졌다. 자살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이것이 6공화국 출범 이래 우리의 모습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노태우씨와 민자당의 공권력에 의해 대학에 입학한지 석달 밖에 안된 대학생이 무참히 살해되었다. 사람들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어찌구무 없는 살인만행에 사람들은 분노 이전의 절망과 비통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우리의 무기력한 분노와 매마른 저주를 절타하며 꽃다운 젊은이들이 자신의 몸을 살렸다. 죽음 통해 저항을 조직했다. ‘박

홍’의 약귀같은 강변과 ‘지하’의 덧없는 변질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 했지만 우리국민이 보낸 답변은 조종과 비웃음뿐이었다.
지난 20여일 동안 연인원 2백만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거리를 메웠다. 강원도 원주시에서 전남 완도군에 이르기까지 87개 시·군에서 노태우씨와 민자당 통치에 대한 저항의 불길이 치솟았다.
노태우씨와 민자당은 당황해하고 있다. 노태우씨를 인당수에 내던지고 권력의 붕괴를 막아 보려한다. 영구독재의 계획표는 버리지 않은채 정침 몇몇의 석방으로 애원을 하는 것인가?
우리국민은 중대한 시점에 이르렀다. 광기어린 독재의 체적질이 불과 한달전인데 이제 옛 한 사람에 자신의 미래를 다시 도둑 당할 것인가? 그래서 안된다. 독재는 삶을 파괴한다. 삶의 윤택함을, 생존의 권리 자체를 부정한다. 이대로 주저한다면 ‘경대’에

게 덧씌워진 운명이 자신의 뒷줄에 미칠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저 지극지극한 장송의 행렬은 끝나야 하지 않는가? 가슴젖은 곡성, 섬뜩한 한숨이 춤의 역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정부를 외친다. 살기위해서 외친다. 민주정부를 수립을 위한 법국민대회의는 수권의지와 능력을 가지고있다. 군부출신의 정권박악아들도 하는 정치를 우리국민이 할수 없다는 것은 거짓이고 모독이다.
노태우씨와 민자당의 통치정치는 마비되고 통치력은 소진되고 있다. 국민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방어할 수 있는 곳은 사형과 참외대뿐이다. 그곳마저 우리국민의 발걸음에 장악되는 순간 노태우씨와 민자당의 운명은 소멸될 것이다. 이미 부산의 공권력은 마비되고 있다.
수려한 조국 5월의 대지는 아름답기만 한다. 성실하고 지혜로운 우리국민의 눈빛은 맑은 예지로 빛난다. 이제 이 아름다운 땅기슭 마다에 배여있는 존엄한 민족사를 우리국민이 회복시켜 내어야한다. 민주정부수립으로!

오 현 철
(법학·4)

모든 사람이 참가하는 축제

근로자, 구조적 불의 속에 노동당이 처진 무기력한 도시민을 양산했구나. 소수계층의 잘 살아보기는 그렇게 다수의 민초에게 꿈을 잃은 생존을 강요했구나. 인간이 인간답기 위한 삶의 여유가 필요한 법, 생존의 바탕에 내뿜린 민초는 그래서 비인



최 병 일
(외대교수·서반야)

간화의 굴레에서 표류하고 있구나. 축제는 인간의 것, 아니, 쇠파이프처럼 삭막하게 매마른 민초의 정서에 축제는 어둠의 심연 저편에나 존재하는 이질화된 소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해서,

민초는 축제를 갈당 당했다.

우리의 축제문화에 커다란 몫을 차지했던 캠퍼스 축제란게 있었다. 이 축제는 최근까지 그 명맥을 나름대로 이어올 수 있었는데, 이는 캠퍼스의 구성원이 정서가 물론 배어나는 젊은이들이고 또한 이들이 학문이란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질화된 집단인에서 연유되기도 하였지만 그 무엇보다도 사회의 불의

한 사회의 불의, 구조적 모순에 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캠퍼스의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거리로 뛰쳐나간 젊은 투사들의 애국적 현실타파주의는 결과적으로 사회와 캠퍼스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차츰 사회의 일부로 합물되어간 캠퍼스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대학 본질의 양태까지도 변질되어갔다. 신성한 상아탑이니, 인적 수양의 도

메마른 민초의 정서에 축제는 어둠의 저편에나 존재하는 이질화된 소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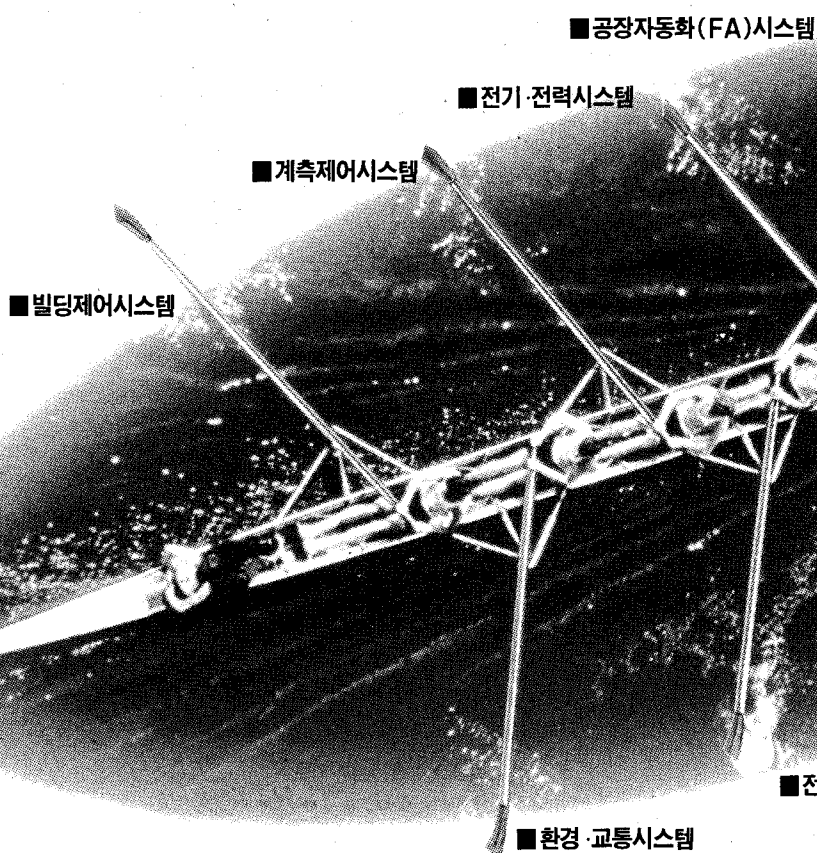
와 모순의 회오리를 캠퍼스란 울타리가 차단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캠퍼스 축제마저도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아파트, 아스팔트 문화속에서 일동만을 강요당하며 공부기 계로 성장한 상당수의 젊은이들의 이기적 현실주의와, 극에 달

량이니하는 유토피아적 발상은 제쳐두고라도 젊은 구성원인 학생이 자신의 삶의 철학에 방향 설정을 시도있게 사색해보지도 못하고 산업현장의 기를 잡지 못한 부속품이 되기위해 거치는 과정 정도로 전락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해서, 우리는

캠퍼스 축제 마저도 잃었다. 꿈은 덧없는 환상인가, 아니다. 꿈은 현실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멀리 않은 장래에 국가의 주축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전횡, 독선, 부지, 인인등이 창출한 반민주, 반민주적 거인체제의 투쟁에 온 정열을 투진한다든가, 척박한 현실에 순치되어 생계수단 강구를 위한 과정 정도로 학창생활을 마무리 짓는다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채색되었는가. 순백의 화복에 화가의 섬세한 손길로 대자연의 담아가는 과정이 학창시절 (영광) 아니, 이어야 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잃었던 인성을 되찾아 머리는 지혜로 번득이고 가슴은 사랑으로 충만하리라.
성결한 광휘로 온 누리가 타오르는 축제의 공간에 내 영혼을 놓치지 못하고, 소급적인 계몽주의적 활력에 손길을 맡길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쓸쓸한 미소를 보내며, 올해 우리의 캠퍼스 축제 날엔 파리 주점과 돈키호테 주점에 들러 싹싹 걸리리 영혼을 위로 하리라.

럭키금성

산업전 분야 - 금성산전이 있습니다



■공장자동화(FA)시스템

■전기·전력시스템

■계측제어시스템

■빌딩제어시스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주차시스템

■자동판매기

■전동공구

■환경·교통시스템



공장자동화(FA)기기 및 시스템, 각종 빌딩설비 및 편의시설에서 전기·전력기기 공급까지 - 금성電産部門의 綜合技術力을 만나보십시오.



●金産電 ●金産計電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

●金産機電 ●金産ハニ엘